

나의 애장품

당신이 아끼는 물건은 무엇인가? 나는 오십이 다 되어 이민을 왔으니 이민의 나이치고는 늙은 나이임 셈이다. 잘 살다 온것이 아니니 그럴사한 내 물건이 있을 수 없다. 그럴듯한 골동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화가의 그림 한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유명 메이커의 골프채나 운동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수집에 전문 지식이 있어서 특정 아이템을 수집하는 것도 아니다. 김정운교수의 <남자의 물건>에 보면 김교수는 만년필을, 또 다른 사람은 안경을, 또 어떤 이는 신발을, 모자를, 악기를, 커피 메이커를, 수재 오디오 제품을, 등등 각자의 전문적 취향과 <물건>을 갖고 있는데 반해, 나는 무얼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에게는 아끼는 나의 물건이 없다. 다시 말해 나의 애장품이 없다. 굳이 내 물건이라 함은 내 자동차 안에 모두 있다. 아내에게서 쫓겨나면 차에서 살아야 한다는 처절함(?) 때문일까? 차 트렁크에는 언젠가도 말했지만 중고 알토 색소폰 한개, 악보, 운동 가방 1개가 있다. 그 가방 안에는 배트민턴 라켓 2개, 탁구 라켓 2개, 수영복 2벌, 물안경, 세면도구, 조강 팬티, 티셔츠, 운동화 등이 실려있다. 다른 운동기구와 등산장비는 필요에 따라 실리는 비정규적이다. 차 내부에는 CD 몇장, 내가 즐겨 듣는 음악이 녹음되어 있는 MP3, 1982도 미국 출장왔을 때 구입한 선그라스, 네비게이터 등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전 누군가가 자동차에 있는 나의 물건들을 몽땅 가져가 버린 것이다. 물론 애장품이라 하기도 민망한 물품들이지만, 나에게는 유일한 나만의 물건들이고 나의 취미생활이고, 내게 즐거움을 주었던 물건들이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물품들이겠지만, 나의 이민 생활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해 주었던 물건들이다. 나의 발이 되어주고 나의 손에 들리워 나의 땀과 눈물이 되어주었던 물건들이다. 나의 노래가 되고 영혼의 울림이 되어 위로하던 악기였다. 그런데 한꺼번에 몽땅 잃어버리고 나니, 순간적으로 허탈하고 여간 속상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가 내 부주의 때문이요, (요즘 자동차는 자동잠금 장치가 있어서 문을 잠그지 않고 내려도 얼마 지나면 자동으로 잠긴다. 그래서 나는 자동차 문을 잘 잠그지 않는 버릇이 있다.)

둘째는 동네 사람이라면, 오죽 돈이 필요했으면, 야밤까지 기다렸다가 몽땅 가져 갔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이다. 나는 떠나간 여자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려야 함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E-Bay 를 통해서 하나씩 다시 구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망상을 해 본다. 하나님은 <총량 불변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아닐까. 나는 내가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지만, 내 물건을 가져 간 사람은 물건을 얻은 셈이니 총량은 변한 것이 없다. 가진 자가 있으면 잃은 자가 있듯이, 하나님이 태어남과 죽음의 숫자를 매년 미리 정해 놓았다면 생과 멸의 합은 불변인 셈이다. 행복과 불행의 총합도 불변이라면 지금 이순간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있다. 웃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도 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다.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도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식이다. 열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니 어느 자식의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우시다. 그러니 인간이 풀 수 없는 복잡한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각자의 그릇만큼, 각자의 노력만큼 살게 하신 것은 아닐까? 단 전제조건이 <상반된 합의 총량은 불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행복하다고 계속 행복한 것이 아니요, 불행하다고 계속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살아야 하는게 아닐까? <상반된 총량>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그분이신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릴케는 <엄숙한 시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 세상 속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는 것이다. // 지금 한밤중에 어디선가 누군가 웃고 있다. / 한밤중에 까닭없이 웃고 있는 사람은 나를 두고 웃고 있는 것이다. //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걸어가고 있다. / 까닭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향해 오는 것이다. //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 세상 속에서 까닭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지금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세상 어디에 누군가 슬피하며 불행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면,,,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이 세상 어디에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면,,, 내가 지금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세상 어디에 굶주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면,,, 나는 미안할 뿐이고, 또 미안할 뿐이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경을 헤매는 친구도 있다. 그들이 하루빨리 쾌유하길 간구하고 소망한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잘못된 것이고, 내가 무엇을 잘한것인가? 그들은 그분께 버림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선택받은 것인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각자 모두를 통해 이루고져 하는 높으신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분이 언제나 함께 하심은 알 수 있다.